



티나 김 갤러리에서 열리는 경 전씨의 '이야기' 전 중에서 '챕터 5'.

캔버스가 속삭이는 이야기

13개 챕터로 암울한 세계 그린 화가 경 전씨

10월 11일까지 티나김 갤러리서 개인전

그림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르네상스 시대 회화는 성경이나 신화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화가들이 관심을 신에서 인간으로, 자연에서 추상으로 옮기면서 이야기는 실종한 것처럼 보였다.

한인 2세 화가 경 전(Kyung Jeon, 33·사진)씨에게 이야기는 필수적이다. 전씨가 지난 5일부터 췌시의 티나 김 갤러리에서 열고 있는 개인전 '이야기(A Story)'는 캔버스가 잊고 있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갤러리는 13개의 챕터(章)으로 나뉜 그림이 단편영화처럼 속삭이고 있다.

소년이 소녀를 만나고(제1장), 모험을 하다가(2장), 소녀는 숲을 날아 다닌다(3장), 그리고는 시련을 만난다(4장). 그들에게는 수많은 교차로가 나타난다. 선택의 순간들이 많아진다. 가지않은 길에 대한 후회도 생길 것이다(5장).

그들의 길엔 비랑도 파도도 있다(6장). 어쩌다가 소녀는 미로에 빠지기도 한다(7장). 어느덧 소녀는 엄마가 된다. 아기가 생긴 것이다(8장). 아이를 기르는 것은 쉽지가 않다(9장). 모성애가

넘치는 소녀에게 세상은 악(惡)처럼 보인다(10장). 다시 위험한 세상이 왔다(11장). 노란 과물이 엄습한다(12장). 여전히 세상은 남녀 유별이다(13장).

전씨는 쌀종이와 캔버스 위에 환상적인 장원을 배경으로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회화를 선보이고 있다. 동화처럼 보이는 캔버스는 사실 모성애·인간관계·죽음 등을 주제로 우울하고도 냉소적인 스토리 모음집이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태어난 전씨는 보스턴대학교에서 철학과 스튜디오아트를 전공한 후 스콜로브비주얼아트에서 석사를 받았다.

- '이야기'의 영감은 어디서 왔다.

"나는 다세대간의 포괄적인 테두리 내에서 작업한다. 이번 시리즈는 다른 이야기 시리즈로 이어질 예정이다. 등장인물은 내 경험 속에서 해석된 것으로 환상적으로 전환된다. 갤러리 공간이 내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펼칠 수 있게 해주며 관람객은 확대된 동화책처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인물들이 음울하고 다소 비극적인데.

"이야기가 그림에서 그림으로 완성된 것이다. 내 무의식 속에서 나온 이 그림들은 본질적으로 슬픈 사랑이야기다. 처음에는 낙관적인 배경에서 시작되었다가 비극으로 들어간다."

-챕터를 13으로 한 이유는.

"불길한 전조를 상징하는 숫자가 13이지 않나.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13장이 됐다는 것이 흥미롭다."

-소년이 소녀를 만나서 소년끼리, 소녀끼리 끝나는데.

"제 13장은 다음 이야기로 진행 중인 고아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위한 전제가 된다. 만일 이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난다면, 소년들만의, 소녀들만의 유토피아가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용한 컬러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여자 주인공은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을 예고하는 빨간색이다. 빨간색은 악과 암흑을 상징한다. 남자 주인공은 자연스런 호기심과 충동을 상징하는 녹색이다. 노랑은 죽음과 재탄생을, 부드러운 감성을 상징하는 옅은 분홍색과 연한 파란색은 소년과 소녀의 세계를 은화하게 구



별하는 색이다."

-왜 쌀종이(rice paper)를 사용하나.

"오래 전에 캔버스 위에 쌀종이를 사용하는 테크니를 개발했다. 처음에는 한국인으로서 나의 뿌리를 연결한다는 의미였지만, 이제 찢어지고, 주글거리고, 편편하지 않은 쌀종이 자체가 내 언어가 된 셈이다."

▶전시일정: 9월 5일~10월 11일.

▶티나김 갤러리: 545 West 25th St. (212-716-1100).

박숙희 기자

sukie@koreadaily.com